



지난해 열린 '고창 문화제 야행'

뿌리 깊은 역사문화 향(香) '고창야행'

내일부터 7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서

고창읍성과 고창전통시장 일원에서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창 문화제 야행'이 개최된다. 고창군의 문화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은 '고창 문화제 야행'은 아름다운 가을날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뿌리 깊은 역사문화 향(香)'을 담은 고창야행'라는 주제로 올해 다시 고창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창 문화제 야행(夜行)'은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체험·전시 등의 문화재 활용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준비했다. 고창군은 94점의 지정문화재가 밀집하는 보

고(寶庫)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고창지석묘, 고창농악, 고창판소리)이다. 특히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어 '고창 문화제 야행'으로 무형문화재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고 고창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텔링 공연과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4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일차게 준비됐다. 축제 기간인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진행되는 '고창 문화제 야행'은 길고래기, 대동놀이, 연등놀이, 고창읍성 달빛 답성놀이, 율기놀이, 백중야행, 아반 백중싸움, 동민동락 다듬이질 노래 공연을 비롯해 미술·판토마임 등 각종 버스킹 공연, 다양한 먹거리·공예 체험 등이 열린다. 이외에도 고창판소리박물관, 고창군립미술관,

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체험 과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야간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대표 프로그램인 '고창읍성 축성 재현·기원의 거울'은 지난해에 이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회원들과 고창군민 4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오페레타 공연으로 주민화합의 장이자 역사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다른 대표프로그램인 '녹두꽃(전봉준 공초)'은 고창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기록을 아름답게 재현한다. 개막공연인 '정화수 치성'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드렸던 정성을 상징하는 창작뮤지컬로 고창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서리풀 원두막·서리풀 이글루·온돌 꽃자리 의자 선정

수상작은 18일부터 2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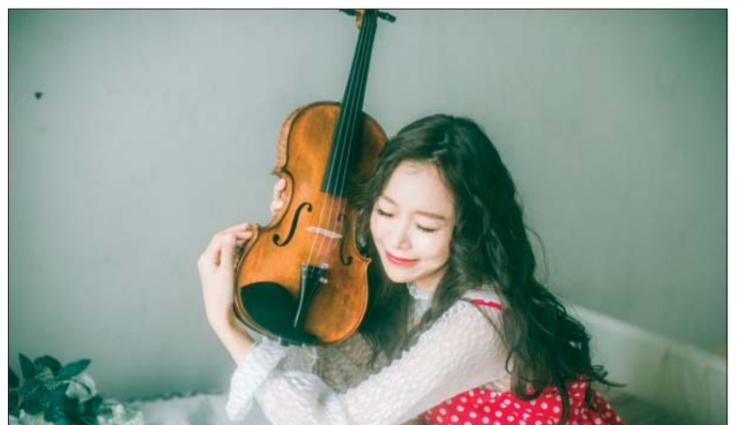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 서초구청의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의자'가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2017년에 이어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공모, 선정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시상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되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품격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병현)이 주관

한다. 올해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4개 분야(생활안전을 위한 디자인, 모드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위한 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로 세분화해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장관상 1점, 진흥원장상 4점 등,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초구청의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의자'는 주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생활 밀착형 공공디자인이다. 이번 공공디자인은 야외 공공장소에서 여름철 햇볕 가림막과 겨울철 난방 대기 공간을 대표하는 사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를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하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부문의 문체부 장관상은 곡성군청의 '곡성 기차당 특방마켓 문화사업'이 받는다. 진흥원장상에는 ▲이형복(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심국보(대전중부경찰서 탐장), 임성숙(대전준법지원센터 계장), 우광식(대전 대덕구 대화동주민센터 동장)의 '소통과 협업으로 완성한 친생활형·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용인시청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고 싶은 학교, 소통하는 교육환경 조성 프로젝트', ▲충대문구청의 '배명산 정상군부대 이적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서대문구청의 '신촌 박스케어'가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열린다.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례는 18일부터 2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뉴시스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마지막 관문 통과... 원로회의 인준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원행(65) 총무원장 체제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는 이날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0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로의원 재직 23명 중 22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인준요건은 재직 원로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원행 총무원장은 2022년 9월27일까지 4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35표(약 75%)를 얻어 당선됐다. 원행 스님은 전임 설정 총무원장이 불명에 퇴진한 뒤 열린 선거에서 당선돼 다른 총무원장과 달리 당선 직후 총무원부·실장을 임명하는 등 원로회의 인준 전에 사실상 총무원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뉴시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이올리니스트 제니 윤.

'댄스올린' 제니 윤, 연예인 농구대회 축하공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 윤(27)이 연예인 농구대회에서 축하공연한다. 20일 경기 수원 금곡동 서수원철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18 풋볼과 함께하는 KCBL 연예인 농구대회' 결승전 하프타임에서 공연한다. 도호미디어 주최로 17일부터 열리는 이번 연예인 농구대회는 난치·희소병 환자에게 티켓 판매 수익의 전액을 기부한다. 올해로 3회째다.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46), 그룹 2AM 멤버 정진운(27), 래퍼 베이식(32), 배우 줄리엔 강(36) 등이 출연한다. /뉴시스

제니 윤은 '댄스올린'으로 유명하다. 댄스와 바이올린의 합성으로, 그녀는 아이돌 그룹 커버 댄스를 선보이면서 바이올린을 켤다. 유튜브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바이올리니스트 제니 윤' 채널을 운영한다. 앞으로 음악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주식회사 네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니지먼트를 지원받는다. 이 회사는 음악MCN과 종합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한다. 제니 윤 뿐만 아니라 이은별, 권유경, 해리안, 태일찬 등 크리에이터가 주축이 된 13팀을 온·오프라인 매니지먼트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